

## 시민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Railway Idle Sites Based on Citizens' Preferences

표재상\*†, 김경민\*, 김지우\*, 이원도\*, 박정수\*\*

Jaesang Pyo\*†, Kyungmin Kim\*, Jiwoo Kim\*, Wondo Lee\*, Jungsoo Park\*\*

**초 록** 최근 우리나라의 노후 철도노선이 복선화·전철화·직선화되면서 기존 철도부지가 유휴부지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는 방치할 경우 도심단절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하게 활용 시 지자체 발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철도 유휴부지를 보유한 지자체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방안 및 이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최적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밑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주요어** : 폐철도, 철도부지, 철도자원, 유휴부지

## 1. 서 론

최근 기존 여객철도 노선의 직·복선화와 화물철도 노선의 폐지 등으로 기존 철도부지가 유휴부지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3조에 의거, 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보전부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  |
| 활용부지 |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 |
| 기타부지 |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  |

철도 유휴부지의 경우 방치할 경우 슬럼화 및 도시미관 저해, 도심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철도 유휴부지를 보유한 지자체들이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있다.

활용하기 가장 쉬운 방식은 레일바이크로 선로 및 기타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레일바이크를 처음 시도한 정선군도 이용객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수, 삼척 등 레일바이크를 설치한 기타 지자체들도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삼척의 경우 개장 이후 2년만에 방문객 100만명, 2013년 150만명 돌파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개장 5년째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연간 이용객이 2017년 51만명 이후 2018년 41만명, 2019년 36만명, 2020년에는 22만명에 그쳤다.

따라서 철도 유휴부지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이윤추구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와 시민 간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본 론

### 2.1 철도유휴부지 목록(여객노선 기준)

국내 여객노선 철도유휴부지는 다음과 같다.

| 지역본부   | 노선     | 연장(km) | 면적(㎡)     | 구간                |
|--------|--------|--------|-----------|-------------------|
| 1. 수도권 | 경부선    | 3.2    | 31.880    | 오산시(외삼미동, 내삼미동)   |
|        | 경춘선    | 82.4   | 1,539.302 | 성북~춘천             |
|        | 중앙선    | 98.2   | 2,017.655 | 청량리~원주            |
|        | 수여선    | 73.4   | 91.606    | 수원시~여주시           |
|        | 수인선    | 2.5    | 79.159    | 인천~수원~안산          |
| 2. 영남  | 경부선    | 9.9    | 2,188.161 | 대구~삼랑진            |
|        | 경전선    | 140.4  | 3,085.415 | 하동~삼랑진            |
|        | 동해남부선  | 29.4   | 937.649   | 부전~포항             |
|        | 임항선    | 5      | 71.921    | 마산역~마산항           |
|        | 동해중부선  | 48     | 1,021.991 | 포항~영덕             |
| 3. 호남  | 전라선    | 63.9   | 1,421.647 | 익산~신리,선도~금지,순천~여수 |
|        | 호남선    | 37.4   | 744.714   | 목포~나주             |
|        | 경전선    | 31     | 557.237   | 동순천~정산            |
| 4. 충청  | 경부선    | 11.6   | 545.488   | 안성~김천             |
|        | 장항선    | 66.1   | 1,583.488 | 천안~서천             |
|        | 대전남연결선 | 2.6    | 129.569   | 육천~대전리~삼천리        |

|       |       |      |           |                 |
|-------|-------|------|-----------|-----------------|
| 5. 강원 | 중앙선   | 25.5 | 560.523   | 유교(원주), 옹천(안동)  |
|       | 영동선   | 39.4 | 968.711   | 안인역(강릉)~백산역(태백) |
|       | 태백선   | 36.4 | 414.011   | 제천~입석리          |
|       | 동해중부선 | 95.5 | 1,419.935 | 삼척~울진           |

### 2.2 폐철도 구간 활용방안

#### 2.2.1 관광열차 운용

기존 선로 및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갖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비가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해남부선 미포~(구)송정 구간을 그대로 활용한 해운대 블루라인파크가 있으며 원주시에서도 중앙선 반곡~치악 구간을 활용하여 관광열차를 추진 중이다.

#### 2.2.2 레일바이크 운영

레일바이크란 철도 위 이동 수단이었던 궤도자전거를 관광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관광열차와 같이 기존 선로 및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열차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낮은 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선선 폐선구간(아우라지~구절리)을 활용한 정선레일바이크가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지역에서도 운영 중이다.

#### 2.2.3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기존선로를 걷어내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는 방법이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교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선 폐선구간 중 팔당~양평 구간을 활용한 남한강 자전거길 남양주~양평 구간 및 경춘선 폐선구간 중 광운대역~대성리역 구간을 활용한 경춘선 자전거길 등이 있다.

### 2.2.4 공원화

기존선로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거나 휴식공간을 만들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지역 주민들의 시선에 좀 더 맞춘 방법으로 단절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중 효자~포항 구간을 활용한 철길숲 및 및 서부경전선 광주~효천 구간을 활용한 광주 푸른길 공원 등이 있다.

### 2.2.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존선로를 걷어내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전선 폐선구간 중 한림정역 구간 일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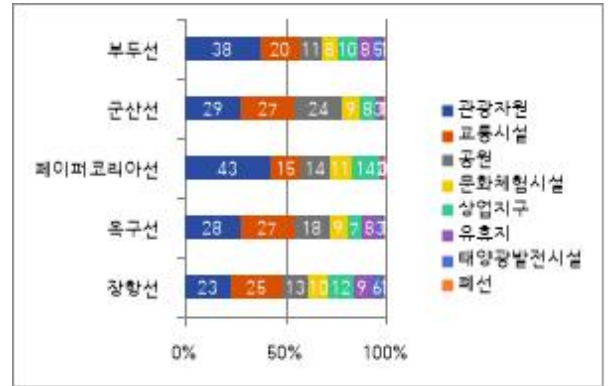
### 2.2.6 교통수단 운영

기존 선로를 그대로 활용하여 트램을 운영하는 방법과 선로를 걷어내고 도로를 만들거나 버스전용차로로 조성해 BRT 등 도로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례가 없으나, 일본 도야마현의 만요선(노면전차 운영), 미야기현~이와테현의 계센누마선 BRT 및 후쿠오카현~오이타현의 히타히코산선 BRT(히코보시라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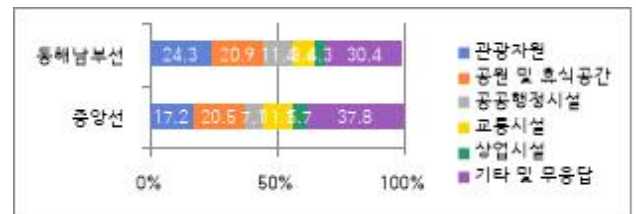
## 2.3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선호도

### 2.3.1 군산시



군산시의 철도유휴부지는 여객노선 1개소, 화물노선 4개소가 있다. 군산시민 7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교통시설로 사용되기를 선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여객노선으로 사용되던 장항선 유휴부지의 경우 관광자원보다 교통시설로 다시금 활용되기를 선호하고 있다. 그 뒤로는 대체로 공원, 문화체험시설, 상업지구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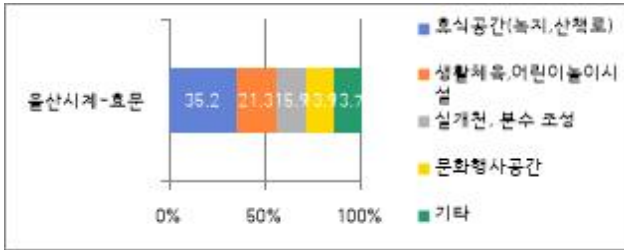
### 2.3.2 경주시



경주시의 철도유휴부지는 여객노선 2개소이며 경주시민 3,1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해남부선(경주~모화 구간)은 관광자원으로, 중앙선(아화~경주 구간)은 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행정 시설 및 교통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 노선 모두 설문 결과에서 기타 의견 및 무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정확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3.3 울산광역시 복구



울산광역시 복구의 철도유휴부지는 여객노선 1개 구간(동해남부선)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체육, 어린이놀이시설로 사용되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개천을 조성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 3. 결론

3개 지역 시민들의 선호도를 확인한 결과 시민들의 경우 대부분 관광자원 및 휴식공간을 선호하며 그 외 교통시설로 다시 재활용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 제7조 제1항에 의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수요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 허가 필요해 이 과정에서 유휴부지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철도 유휴부지 활용제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휴부지가 지자체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방안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https://www.iusm.co.kr>)
- [2]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 [3] 국가철도공단
-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버려진 폐철도, 명품 녹색자전거길로 탈바꿈
- [5] 국가철도공단 보도자료-철도공단 영남본부, 경전선 폐선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설치
- [6] 폐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본 지역 활력거점 개발방안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과 도시공간 42호 중
- [7] 국가철도공단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사업’ 국무총리상 수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10411?sid=102>)
- [8] 전북일보 - 군산 폐철도 활용 방안 ‘관광자원’ 선호 (<https://www.jjan.kr/article/20200923717194>)
- [9] 포항 MBC - 땅 파면 문화재 나온다? 경주 폐역·폐선부지 개발(<https://www.youtube.com/watch?v=NJaDh0tHJF8>)
- [10] 울산매일 UTV - 폐선부지 ‘테마별 숲길’ 조성...주민 휴식공간 탈바꿈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065>)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 교신저자: 동양대학교 철도학술동아리 TRM

\* 동양대학교 철도학술동아리 TRM

\*\* 동양대학교 철도학술동아리 TRM 지도교수